

10/23/22

설교 제목: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3 장 1-20 절

-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절관주** 마 26:2
-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절관주** 마 26:14, 눅 22:3
- (요 13: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 (요 13: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절관주** 눅 22:27
- (요 13: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 (요 13: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절관주** 마 3:14
- (요 13: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절관주** 요 13:12, 요 13:13, 요 13:14
- (요 13: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절관주** 삼하 20:1, 왕상 12:16
- (요 13: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 (요 13: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절관주** 요 15:3
- (요 13: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 (요 13: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절관주** 요 13:4
- (요 13: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절관주** 요 11:28
- (요 13: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 (요 13: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절관주** 벤전 5:3

(요 13: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절관주** 고후 8:23, 빌 2:25

(요 13: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절관주** 요 13:10

(요 13: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절관주** 요 15:16, 요 17:12, 시 41:9, 마 26:14

(요 13: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요 13: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절관주** 마 25:40

본장부터 본서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일곱 가지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덟 번째의 표적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행하시기 위해 나아가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 중 가장 위대한 표적입니다.

사도 요한은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진 최후 만찬의 때와 시간을 언급합니다.

(요 13: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공관 복음 저자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가진 날이 유월절 저녁이라고 기록한데 반해 요한은 유월절 전날 저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 년간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출애굽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들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비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장자의 재앙을 당한 애굽 왕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다시피 애굽 땅에서 내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430 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출애굽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사건을 자자손손 전하고 기념하여 당신이 자신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그날을 유월절로 지켜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진 최후 만찬의 때와 시간을 언급한 것은 의도적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목요일 오후 3-5시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한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서 시작부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양으로 이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요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요한에 따르면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인 수요일 저녁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마치신 후 그곳에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으며 다음 날인 유월절 아침 6시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때가 목요일 오후 3-5 시경이므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과 시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과 시간과 일치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과 시간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이 땅에 오신 유월절 어린양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훈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본서 전반부 (1 장-12 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라는 것을 선포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어 당신께로 나오게 하신 것을 기록하고 후반부 (13 장-17 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육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롯 유다가 있었습니다.

(요 13: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롯 유다는 12 제자 중 하나였지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였습니다.

(요 6: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요 6: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요 6:71)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당신을 배신할 것을 아셨고 또 잠시 후 당신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게 되면 다른 제자들도 당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배신과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대비됩니다.

본절에서 사도 요한은 마귀가 벌써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들은 우리의 탐심과 욕망을 이용하여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녁을 잡수시던 중 갑자기 일어나셔서 친히 제자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기십니다.

(요 13: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요 13:4)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 13:5)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4 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열 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과 요한 복음은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에서 성찬을 강조하고 있으나 요한은 성찬에 대해 기록하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일이 있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를 놓고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얼마 안 있으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삼일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각자가 차지할 자리를 기대하며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막 9:33)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막 9:34)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막 9:35) 예수께서 앉으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 형제는 예수님께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면 하나는 영의정 다른 하나는 우의정에 앉혀 달라고 청원까지 하였습니다.

(막 10:35)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막 10: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막 10: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렇게 동상이몽을 꿈꾸는 제자들을 보면서 당신의 제자로서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로서 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삶 곧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가장 당황해 했던 것 같습니다.

(요 13: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요 13: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요 13:8)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요 13:9)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요 13: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요 13: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요 13: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교훈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훈도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믿어 당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을 목욕에 그후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을 발 씻김에 비유하시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후 지은 죄는 그때 그때 주님께 고백하여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것입니다.

(요 13: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요 13: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 13: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은 후에야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 교회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제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제자로서의 삶은 성결한 삶입니다.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입니다.

이시간 우리가 당장 섬겨야 할 대상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 교회 이웃 직장 사업체 등에서 각자가 감당해야 할 섬김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섬김이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 교회 이웃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